

KMU
NEWS



2012.VOL.57. 봄호

계명대학교 소식

Keimyung University News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발행인** 신일희
전화 053-580-6031~4 **팩스** 053-580-6035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이메일 hongbo@kmu.ac.kr **DESIGN** 인디자인 (070-7624-0053, 02-512-3506)

KMU NEWS VOL . 57 . 봄호

KMU Spirit

04 Special Issue I / 국책사업 5관왕 달성

06 Special Issue II / 세계 속의 계명대

Acta Koreana(악타 코리아나), 국제학술지 A&HCI 등재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 선정
 주한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 개소 /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 공동 주최

12 Season Photo / 캠퍼스의 봄 풍경

14 연구실에서 / 신라사대계 편집위원장 사학과 노중국 교수

16 인물 포커스 / 독일 본 (Bonn) 대학 동양학부 윤선영 동문

18 Special Issue III / 글로벌병원으로 도약하는 동산의료원

KMU IN & OUT

- 20 ACE 계명 / 잘 가르치는 대학! 잘 배우는 대학! / ACE학기 수기
- 24 그들이 궁금하다 / 2012학년도 신입생
정성훈 (경영학과 1학년) / 송진선 (공중보건학과 1학년)
- 26 레드카펫 / 계명대 1호 여성 ROTC
나현선 (경찰행정학과 3학년)
- 28 시선집중 / 산학협력 중심으로 우뚝 서다
- 30 자랑스런 계명인 /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제갈현열 동문 (광고홍보학과 03학번)
- 32 Global 계명 / '프레타포르테' 산업 연수기
이가영 (패션마케팅학과 4학년)



KMU Story

- 34 기자가 본 계명 / 나와 계명대학교, 그리고 계명대 청년들에게
최병고 매일신문 기자
- 36 계명의 향기 /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 뮤직바이러스 사업
- 38 문화산책 / 계명대는 On - Air!

Zoom in KMU

- 40 KMU Brief News
- 44 동산의료원 소식
- 46 모교 사랑 / 발전기금 조성 안내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계명대 국책사업 **5관왕**의 위업 **달성**하다

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만 다방면에서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계명대의 국책사업 5관왕 달성의 위업이 크게 다가온다. 계명대는 지난해 학부교육 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이어 최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에 이르기까지 최근 대형 국책사업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인재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발판으로 인재육성 메카로

계명대가 올해 대학가의 최대 관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과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전국 51개 대학에는 총 1,700억 원, 대학당 연평균 약 40억 원 내외의 예산이 5년간 지원된다.

그동안 산학협력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계명대는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거액의 재정을 확보함에 따라 이제껏 계획해왔던 산학협력 핵심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수익금 창출과 청년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1명뿐인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원을 증원하고 교원인사제도에서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센터, 공동활용 장비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설 또는 개편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협력 기초과목과 맞춤형 전공의 개설 및 운영, 지역특화 선 취업·후 진학 지원프로그램 등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산학협력 선도기관으로서의 면모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일희 총장은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계명대는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그 역할에 충실히 해온 만큼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책사업 5관왕,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계명대는 최근 선정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지방대학 대형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지역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37억 2천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계명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국제인 양성을 위해 계명인재의 핵심역량 개발 구체화, 사회진출역량 강화, 창의적 글로벌 역량 강화, 학습능력 제고, 학문분야별 역량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의 6가지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창업지원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 거점대학으로 집중육성하고 창업과 관련된 국가자금 지원 및 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 공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도 대구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대졸자의 기술 수준과 산업계의 요구 수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계명대는 매년 2억 원 내외의 예산을 평가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운영기관,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등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관련 대형 국책사업에 대부분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육성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

계명대 국책사업 성과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5년간 150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잘 가르치는 대학(ACE)’ 선정, 4년간 110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2012년 37억 원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51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선정, 10년 최대 20억 원 지원



세계에 한국학 알리는 계명대 !

Acta Koreana(악타 코리아나),
지방대 최초 국제학술지 A&HCI 등재

Acta Koreana 편집장
마이클 핀치
한국문화정보학과 교수

A&HCI 등재 소식을 들었을 때 소감은?

계명대가 발간하는 한국학 영문 저널인 'Acta Koreana'가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다. A&HCI는 Thomson Reuters(통슨 로이터/구.ISI, The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사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분야 인용색인으로 이 회사의 과학 분야 인용색인 SCI(Science Citation Index), 사회과학 분야 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용색인으로 알려져 있다. A&HCI에 등재된 국내 저널은 서울 규장각에서 발간하는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등 총 6종이며,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 성균관대에 이어 계명대가 세 번째이다. 이로써 'Acta Koreana'는 2009년 발간한 12권 1호부터 'A&HCI'에 등재되어 국제전 문학술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국내외 19명의 편집위원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학자들과 이윤갑 한국학연구원장, 김종순 전 편집위원장 등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1년부터 Acta Koreana 부편집장으로, 최근 2011년부터 편집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클 핀치(Michael C. E. Finch) 교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사실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등재되어 있는 서울저널이나 성균관대 저널에 비해 그 수준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고, 2001년 이후 꾸준히 'A&HCI'의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창간 이후 최근까지 편집장으로 활약하셨던 김종순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편집위원, 논문 투고자, 연구원 등 모든 분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김종순 교수가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편집위원회를 이끌어오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200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KCI에 등재됨으로써 'Acta Koreana'의 가치를 한 단계 드높인 것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Acta Koreana’는 어떤 학술지인가요?

‘Acta Koreana’는 ‘한국에 관한 논문’이라는 라틴식 표현입니다. 한국학 전문 영문저널로 1998년 창간되어 2012년 3월 현재까지 총 25권이 발간됐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비해 논문, 인터뷰, 서평 등 그 내용이 다양하고, 해외의 유명 번역가가 한국문학을 엄선하여 번역한 작품을 계속해서 싣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매호 5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해외 250여 개의 한국학 연구기관과 주요대학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 예정입니다. 국내외 저명 한국학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발췌한 단행본 ‘Recollections, Reflections, and Directions’와 한국단편소설의 번역물을 편집한 ‘Waxen Wings’ 등의 도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수집하고, 번역과 감수, 수정작업 등 저널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한국학자들과 원고와 관련하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하는 일이 쉽지않은 않지만, ‘Acta Koreana’를 매개로 많은 유명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널의 특성상 내용이 학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한문이나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등에 있어 실수 없이 완벽히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큼니다. 하지만 저널이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학 연구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도자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영문학과 재학 당시, 대학 박물관에서 도자기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도자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매력을 느꼈습니다. 영국 현대 도공의 미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도덕경, 논어 등 동양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0년대 영국에는 동양류가 있어서 합기도, 태권도 등의 무도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1982년, 영국에서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영문학을 전공한 만큼 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내로부터 『춘향전』, 『홍부놀부전』, 『심청전』 등의 한국 고전에 대해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선한 역할과 악역이 명확히 구분되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너무도 확실한 것이 당시 제게는 무척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1987년부터 8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연세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죠.

‘Acta Koreana’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1998년 김종순 교수가 미국에서 ‘Acta Koreana’의 발간을 시작하였을 때, 제가 서평을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계명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1년, 때마침 계명대학교의 외국인 초빙교수 모집공지를 보게 되었고, 가까이 지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고에 ‘Acta Koreana’ 부편집장 역할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연히 저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일단 올해 ‘Acta Koreana’ 6월호에는 ‘한국의 천주교’, 12월호에는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이슈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 6회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삿갓 영문 번역시집 발간도 준비 중입니다.

‘A&HCI’의 등재와 더불어 또 다른 국제인용색인지인 Elsevier(엘스비어)사의 ‘SCOPUS(스코푸스)’에도 등재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학을 미술사나 박물관학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 계명이 이끌어갑니다

언어는 문화의 바로미터이다.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시발점도 결국 언어임을 감안할 때 한국어교육은 언어를 넘어서 한민족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하고 있는 계명대.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한국어교육의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한국센터 설립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한국어교육의 산실

계명대는 지역대학 중 유일하게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시작 첫해인 지난 2008년부터 연속해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국어 연수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매년 약 50여 명의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 4년간 계명대를 다녀간 학생은 105명에 이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계명대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집중해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해왔다.

그 결과 이미 경쟁 대학(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선두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계명대 한국어·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권에도 그 교육과정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독일 본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학생 30여 명이 단체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잠재적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우리나라에 초청, 유학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친한파 외국인 인사 양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초청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장학금, 생활비, 연구비, 정착지원금, 항공료, 어학연수비, 논문 인쇄비, 의료보험료 등 유학 관련 경비 일체가 지원되는 파격적인 장학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연수기관에는 전국 8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중 대학원 장학생 연수기관은 계명대를 비롯해 5개 대학, 학부 장학생 연수기관은 3곳이 선정되었다.



세계 곳곳에 선 계명한국센터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몽골, 타지키스탄, 베트남 등 제3세계 국가에 계명한국어문화센터를 설립,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전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류의 바람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짐바브웨대학교 한국센터 현판식

지난 4월 10일(화)에는 짐바브웨 짐바브웨대학교(University of Zimbabwe)와 한국센터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센터 현판식을 가졌으며, 13일엔 탄자니아 도도마대학교(University of Dodom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센터를 개설했다.

그리고 이들 대학에 설치된 한국센터에 (사)계명 1%사랑나누기에서 지원한 교육기자재(노트북, 빔 프로젝트, 카메라, 복합기 등)와 교육환경개선 기부금도 전달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 숙소와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계명대 교원의 현지 파견을 적극 요청해 계명대 연구원 교수를 파견, 현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들 대학 교원의 상당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드문 점을 감안해 우수 학생을 계명대 KISS(Keimyung International Sarang Scholarship) 장학생으로 선발, 계명대 대학원에 유학시킬 계획이다.

특히 짐바브웨대학교는 향후 한국어과 개설을 목표로 별도의 한국센터 건물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히며, 한국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오며 따라 한국정부 및 관계기관, 대기업 등과 협의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계명대는 한국센터 개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 사회, 예술 등 한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소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탄자니아 도도마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 한국센터 설치를 환영하는 모습



독일 전문 인력, 독일통(獨逸通) 키운다

계명대의 국제화가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캠퍼스 내에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가 설치되어 독일 어학은 물론, 문화와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EU권 재정위기 사태에서 독일 경제력의 파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계명대의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 설치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독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초기지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대구분소), 8월 개소

지난 3월 21일 성서캠퍼스 본관 제1회의실에서 신일희 총장과 스테판 드라이어(Dr. Stefan Dreyer) 주한독일문화원 원장(독일문화원 동아시아지역 대표), 한스 울리히(H.E.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대구분소) 설치 양해각서 체결식이 거행되었다. 계명대에 개소하는 주한독일문화원 대구분소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에서는 충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되는 것이다.

오는 8월 개소 예정인 주한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는 성서캠퍼스 동영관 1층에 설치되며, 서울 소재 주한독일문화원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일반 어학강좌를 시작으

로 독일어자격증시험은 물론, 독일 문화, 예술 등 독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신일희 총장이 한·독 간 문화교류와 국제관계 개선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연방공화국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독일 정부 단기어학 장학생도 선발

또한 계명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매년 재학생 중 2명을 독일 정부 단기어학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와 항공료, 숙박비 등 유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독일문화원 대구어학센터 설치를 계기로 탄생하게 될 독일 전문가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주한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Seoul)

—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 독일어를 알리고 국제문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사회,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독일의 모습을 소개한다.

다양한 어학강좌 개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독일어학증명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어 교사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도서관은 독일의 문화, 정치, 사회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적과 시청각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주한독일문화원 <http://www.goethe.de/seoul/>

계명대가 주최하는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

‘국가별 포럼’ 사업에 계명대가 주최기관으로 나선다. 계명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리는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의 공동 주최·주관기관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의 구심점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0
11

지방대 유일, ‘한국-이탈리아 포럼’ 사업 공동 주최기관으로

지난해 3월 계명대학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이탈리아 포럼 공동주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2010년 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실시한 5개의 국가포럼 공동 주관기관 공모에 수도권 4개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유일하게 계명대학교가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계명대는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이탈리아 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해오고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포럼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주요 국가·지역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 개최

계명대가 주최하는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다. 포럼은 ‘한국과 이탈

리아 양국 간 새로운 모델 수립’을 주제로 사회, 정치, 환경, 섬유패션사업, 무역 등에 대한 양국 간 대표인사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구미 삼성전자와 LG 전자 방문, 계명 한학촌에서 환송만찬 등의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신일희 총장과 김우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한국 공동 대표단장을 맡고, 계명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준비위원장 및 실무를 담당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제5차 한국-이탈리아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계명대는 국가규모의 국제포럼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대구경북의 위상과 이미지도 높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탈리아 교류의 허브로

계명대는 ‘한국-이탈리아 포럼’의 후속사업으로서 한국-이탈리아 양국 간 교류에도 발벗고 나선다. 지역의 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섬유 단체 간 MOU 체결 및 상호 교류전시회

를 추진하고, 대구와 밀라노에 섬유패션마케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양국의 공조시스템을 공고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이탈리아 포럼

‘한국-이탈리아 포럼’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제1차 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한 이래, 2005년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연도별로 양 국가가 교대로 개최한다.

한국과 이탈리아 간 고위급 상설대화체를 구성하여 양국관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탈리아에 전달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또,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정부, 의회, 경제, 언론, 학술 및 사회문화계를 대표하는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青春, 푸르른 봄에게

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봄꽃이 방긋,
있는 힘껏 고개를 들어 보이는 것도
깊은 향기를 내뿜는 것도
다 기회의 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입니다.
겨울을 지나온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날 시간,
지체할 수 없는 청춘의 봄날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바로 **역사**입니다

노중국 신라사대계 편집위원장, 사학과 교수

천년신라의 역사와 오늘의 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 사학과 노중국 교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자식들을 출세시킬까 고민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년, 200년, 천 년 전의 선조들도 그런 고민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그 시대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이고,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과거의 고민과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E. H 카(Carr)의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도 이러한 의미일 터.

노중국 교수가 편찬위원 겸 편집위원장을 맡아 발행하는 ‘신라사대계(新羅史大計)’는 신라사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다.

신라사는 우리 고대사의 핵심

우리 고대사의 핵심이 신라사입니다. 현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고려, 통일신라, 삼국, 고조선이죠. 삼국이 합쳐진 것이 신라이고, 이것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고대사의 뼈대를 세우는 데 신라가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천년의 역사이고,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경주’라는 유적도시가 잘 보존돼 있어 고분들과 고고학적인 자료가 많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 자료들도 신라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시대의 신라 자료가 있고, ‘삼국유사’에도 90% 이상이 신라 관련 내용이지요.

총체적 신라사 연구의 부진

많은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일찍이 신라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지만, 근래에 들어 상대적으로 신라사 연구가 많이 부진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가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신라사 연구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책도 없습니다. 앞으로 신라사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지금까지의 연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라사가 등줄기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한국 고대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대구경북 사학 교수들의 모임, 목요윤독회

총체적 신라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목요윤독회'에서입니다. 1984년부터 대구 시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대구경북 사학 교수들이 학술교류와 화합을 다져오고 있는 모임으로, 처음부터 제가 이 모임을 이끌어왔고 오는 2014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신라사 연구 부진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연구집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것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상북도 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경상북도와 학계가 손을 맞잡고

경상북도를 찾은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총체적 신라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요구에 때마침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뜻이 맞아떨어져 '신라사대계'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하여 내용을 채우는 실질적인 작업은 학계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은 '천년왕국 역사와 신라'라는 이름으로 홍보 부문과 연구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신라 역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신라 금석문(탁본) 전시회, 시민특강 등의 교육홍보 사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30권의 신라사대계, 2014년 완성

목요윤독회를 이끌어오고, 또 2003년부터 3년간 충청남도에서 백제문화사대계 편찬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것 등을 이유로 제가 '신라사대계' 편집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지요.

현재 정해진 것은 2014년 편찬 예정인 신라사대계를 총 30권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연구총서 22권, 고고미술자료집 8권으로 나뉩니다.

연구총서는 역사학자의 다양한 해석을 고려하여 한 권의 책 안에서 일관성과 평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고미술자료집은 신라의 성립과 성장 등 도록만 보고서도 신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게도 연구의 경향과 방향, 문제점들을 꼬집어낼 수 있도록 대중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방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인 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작년 11월에 '신라사대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600~700명이 참여해 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신라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에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윤선영 동문 독일어문학과 86학번, 독일 본(Bonn) 대학 동양학부 교수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종종 타인의 삶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며 살아간다. 여기 ‘해라’ 라는 강요가 아닌 ‘하자’ 라는 청유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윤선영 교수가 있다.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웃을 돌보기 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살다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모든 실수와 좌절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희망 속으로 전진하십시오.”

윤 선 영 교수

1986. 3 ~ 1990. 2 계명대 독일어문학과 학사

1990. 3 ~ 1992. 8 계명대 독일어문학과 석사

1992. 9 ~ 1994. 2 계명대 독일어 시간강사

1994. 3 독일 본(Bonn)으로 유학

2005 ~ 2009 본 대학 동양학부 시간강사

2010 겨울학기 독일 본 대학교 언어학 박사

2010 ~ 본 대학 동양학부 초빙전임강사(한국어 전공)

독일 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텍스트 언어학, 번역학 이론 및 번역 실무, 한국문화와 한국학을 가르치는데,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겨울 신학기에는 정원이 60명인 한국어 수업에 90명이 등록해 수업에 차질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또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된 '2011년 여름 한국문화여행(계명대 여름 캠프)'에도 무려 27명의 독일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2012년 여름 한국문화여행에는 한국어 전공 학생 외에도 4명의 학생이 더 참가하겠다고 신청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즐거운 학생들과의 만남

학생들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함께 열심히 하자고 합니다. '해라'가 아니라 '하자'고 말합니다. 같이 수업을 해야 서로가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수업은 늘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제가 가르친 전공 지식이 수업시간에 제한되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

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종종 제 수업 내용이 배경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피드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기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많은 선생님처럼 저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저는 그리 평탄치 않은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와 학과라는 어리석은 마음에 1년의 시간을 흘려보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다가와 용기를 준 고마운 선배님들 덕분에 학과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지

인 분의 추천으로 로타리재단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 와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위로와 용기를 되돌려주는 선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유학생으로, 외국인으로 살아보는 것은 긴 인생에 참으로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학을 결심했다면 학문뿐 아니라 공부해보고 싶은 나라 또는 대학 제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공부를 하

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독일유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 개설되는 독일어와 독일문화 관련 수업을 청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만큼 힘든 것이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대학에는 시간표를 정해주는 학과 조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듣고 싶은 수업과 들어야 할 수업을 찾아다녀야 하고, 교수님을 만날 때도 미리 면담시간을 정하고 면담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유학생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을 노래하는 삶이 아름답다

독일에 온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은 낯선 외국이고, 저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 작은 꿈이 하나 실현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을 섬기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외에 한국문화 및 문화를 독일어로 번역 소개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거위의 꿈'을 노래하면서 말입니다.

제2의 도약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글로벌병원으로 도약하는 동산의료원



2015년 개원 예정인 동산의료원 새병원 조감도

메디시티 대구의 자존심, 동산의료원이 지역 내 우수 의료기관에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서비스 선진화에 앞장선 결과 최근 동산의료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의료관광 선도기관, 대구 최우수 친절병원에 선정되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외국인환자에 큰 호응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동산의료원이 지난해 5월 26일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동산의료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 왔으며, 지역병원 중 유일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 10개 의료기관에 선정된 결과이다.

동산의료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한 해 외래와 입원을 합쳐 8,175명에 이른다. 가벼운 감기환자에서부터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까지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26개 진료과를 다녀갔다. 물론 최근 활발해진 해외 의료관광도 환자 증가세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동산의료원은 1960년대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만들어 진료활동을 펼쳐왔다. 현재는 국제의료센터를 개설하고 11명의 의료진과 직원을 상주시켜,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통역 안내, 외국인 보험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113년 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인 만큼 국제화에 걸맞게 온 교직원들이 외국인을 진료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의료센터의 축적된 노하우와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산의료원은 2009년에도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외국인 진료 부문’, 2010년에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병원’에 선정되는 등 연이은 수상을 통해 국제 진료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관광, 준비된 동산의료원으로

대구시 ‘의료관광 선도기관’에 지정

차별화된 글로벌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동산의료원이 대구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 의료관광 선도기관’에도 선정되었다.

동산의료원은 의료관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선 병원을 찾은 의료관광단에게 환영 행사를 통해 대구 의료계의 친절함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어가 능통한 의료진과 함께 검사별 통역을 두어 건강검진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배려했다. 또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24시간 내에 모든 검사결과와 판정을 마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국 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동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의료선교박물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관광객들이 진료뿐 아니라 한국문화에도 애정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상품개발, 다국어 안내표지, 외국인 전용 주차장, 홈페이지 강화 등 외국인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환자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대구 최우수 친절병원’ 선정

동산의료원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대구경북병원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 정책사업 중 하나인 ‘친절제일 선도병원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친절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2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고객과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로 진행되었다. 한편 ‘제3회 의료서비스 전진대회’에서 ‘설명 잘하는 의사’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이경재 교수가 선정되었고, 친절사업 포스트 전시회에서 동산의료원이 ‘친절베스트 정책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8
19



동산의료원 전경

☆☆☆

동산의료원 새병원 건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지난 3월말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2015년 새병원 개원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병원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료시설부지(대지면적 40,228.4㎡)에 지하 5층, 지상 20층(연면적 178,459.81㎡)의 1,033병상과 차량 1,35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함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다. 동산의료원 새병원 건립은 지역의료발전에 큰 획을 긋는 동시에 글로벌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잘 배우는 대학!

ACE 계명, 실천적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하다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매스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검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계명대. 지난해 5월 잘 가르치는 대학(ACE)에 선정된 계명대는 방학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ACE 학기' 운영과 '잘 배우는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실천적 생각과 차별화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ACE 계명' 을 만나보자.



잘 가르치는 대학! ACE학기 운영

계명대는 ACE사업의 일환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역량을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ACE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에 개설된 ACE 겨울학기에는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IT 전산능력 강화프로그램, 어학능력 향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특히 900명 선발에 재학생 2,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몰린 '단기 집중 외국어 캠프'와 해외의 선진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공 분야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계명 전공 글로벌 체험 학습프로그램(KMGEP)'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외에도 신입생 스프링 캠프,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프로젝트, K-Circle(학습동아리), 카네기 리더십 교육, 국외 인턴십, 국외 봉사활동 등 4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총 90여 개의 프로그램에 11,5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뜨거운 겨울방학을 보냈다.

계명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인 잘 가르치는 대학(ACE)에 선정되어 4년간 약 110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 바 있다.

잘 배우는 대학 ! 학생들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으로

교육효과가 뛰어나려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배우는 자세, 즉,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계명대는 한 발 앞서 '계명 잘 배우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통해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의 실행지침을 보면 '강좌별 학습계획 세우기', 'PQ4R 학습법 습관화하기[개관하기(Preview), 질문하기(Question), 읽기(Read), 숙고하기(Reflect), 암송하기(Recite), 복습하기(Review)]', '수업관련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허기(과목별 스터디그룹 구성)', '앞자리부터 앉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협조 부분에서는 '매 강의마다 강의목표 설정', '수업자료 준비 및 전달 철저',



☆☆☆

'잘 배우는 대학' 문화운동

계명대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자는 취지로 '잘 배우는 대학' 문화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각 단과대학별로 '잘 배우는 대학' 선포식을 여는 등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도와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계명대는 잘 배우기 위한 덕목으로 '청정절용(淸正節融)'의 네 가지 항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영역을 제시하였다. 청결한 강의실 분위기를 의미하는 청(淸)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 분위기 개선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정(正)은 진로 및 취업 관련 목표설정과 전문역량 강화를, 절도 있고 절제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절(節)은 자기성취를 위한 경쟁적 활동 참가, 학습집단의 형성 및 참여를, 그리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융(融)은 진취적인 학습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잘 배우는 대학' 문화운동은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심화와 진로관련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돼 소속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행 지침을 작성,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수강생 전원 질문과 발표 유도', '수업마다 학생면담 시간 정하고 면담 독려', '학생이름 외우기와 부르기' 등을 약속하며, 학생들의 '잘 배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행정지원 부분에서도 '수업특성에 맞게 지정좌석제 도입', '수업 효율성 최적화를 위한 교수대 학생 비울 제한', '매월 정기적인 강의실 기자재 점검 및 최신화', '학습 관련 원스톱 클리닉센터', '졸업인증제'를 제안하는 등 '잘 배우는 대학' 문화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의 핵심 주체인 학생, 교수,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ACE 학기의 '계명 전공 글로벌 체험 학습프로그램' 을 통해 2주일 동안 미국의 자연환경과 환경시스템을 경험한 9명의 계명학도들이 있다. 환경과학과, 환경계획학과, 지구환경학과와 전공과 연계하여 환경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과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을 방문한 것. 각 기관 종사자 및 대학 교수, 학생들을 만나며 선진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환경과학과 강수철, 김강미, 황성순 / 환경계획학과 김경선, 정재훈, 김채낭
지구환경학과 김문규, 김정호, 이혜림, 천승용

오랜 소망을 이루다

환경과학을 공부하면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선진국의 우수한 시설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볼 때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고 들으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왔다. 그런데 드디어 내게 '계명 전공 글로벌 체험 학습프로그램' 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나라와는 자연조건, 삶의 방식 등이 너무도 다른 미국의 환경시스템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꿈같은 현실에 사로잡혀 12시간의 비행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완벽한 기술력에 놀라다

가장 인상 깊은 곳 중 하나였던 OCWD(Orange County Water District)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GWRS(Ground Water Replenishment System)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여 나온 물을 다시 정화·정수하여 지하수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폐수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는 이곳의 RO(Reverse Osmosis)기술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RO 안에 들어가는 물질은 사람 머리카락의 약 100배 정도 되는 아주 가는 실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좋은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폐수가 정화되어 나온 물을 먹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물맛이 좋았다. 세심한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그들의 섬세함과 완벽한 기술력이 대단해보였다.

☆☆☆

계명 전공 글로벌 체험 학습프로그램(KMGEP)

ACE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계명 전공 글로벌 체험 학습프로그램은 국제적 감각과 도전정신, 현장 적응력,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창의적인 국제인 양성을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전공 관련 주제를 정해 해외 유수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전공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 학습 국가에 따라 1인당 150만~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미국의 자연조건이 부럽다

거대한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던 팜 스프링스 풍력발전소(palm springs windmill)도 잊을 수 없다. 강원도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상상한 내게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개비 모양의 풍력발전기들의 행렬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이곳에 풍력발전소가 세워진 이유는 단 하나, 바람이 통과하는 계곡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자연적 힘과 지형이 있었다면 화석연료로 인한 많은 환경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덧붙여 이러한 지리적 조건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해안도 부러웠다.

자연과의 공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가장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 곳은 역시 SMWD (Santa Margarita Water District)이었다. 오렌지카운티 주위 5개의 시에 비상시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겨울에는 10일, 여름에는 6일 정도 사용할 물을 비치한다고 하였다. 이 시설은 건립 당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린벨트에 지어졌는데, 총 5년에 걸쳐 공사기간

중 50% 이상이 자연생태계를 위한 공사였을 정도로 환경보존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지금도 1년 유지비의 50%는 자연보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인간을 위한 시스템이지만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곳을 보고나니 얼마 전에 있었던 구미 물 공급 중단사태가 생각났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쓰임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미국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을 보고 나니 처음에는 그들의 지형적 조건과 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하지만 더 부러웠던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정신이었다. 개방적인 연구실 환경, 시민과 화합하는 열린 대학,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연구자들, 단기성과보다 장기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기관들. 이런 것들이 모여 미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체험 학습프로그램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었다. 미국처럼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한다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진정한 경제발전, 환경발전이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리라 본다.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22
23



새내기, 그대들이 봄이다

톡톡 꽃망울 터뜨리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봄은 설렘 그 자체. 계명대에도 이러한 봄이 찾아왔다. 이제 갓 캠퍼스에 발을 내디딘 12학번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적응해가며 가슴속 품은 꿈 싹을 조심스레 틔우고 있다.

캠퍼스를 누비는 12학번 신입생 여러분, 그대들이 바로 계명대의 봄이다.



회계사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정 성 훈 경영학과 1학년

계명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학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과제로 <회계천재 홍대리>라는 책을 읽은 이후로 공인회계사를 꿈꾸게 되었거든요. 숫자경영, 회계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되어 있었는데 회계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경영학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회계학을 전공해서 꼭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한 달여 대학생활을 해본 소감은?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다 보니 대학교에 오면 많이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는 물론 다양한 경험도 해야겠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수업은 평소 관심 있는 경영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점점 이해의 폭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Fresh Camp에도 참석했죠?

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수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Fresh Camp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낯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학생활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입학하기 전 겨울에도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교환학생에도 관심이 많은데, 기회를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학습법을 공유하는 '학습 서포터즈'로도 활약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했어요. 많이 배워서 제가 오래도록 즐기는 취미생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송진선 공중보건학과 1학년

계명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집이 울산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쪽 울산에 있었어요. 계명대에 대해서는 드라마 촬영지로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엄마가 간호사이셔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챙기고 보듬는 엄마의 모습이 좋아보였고, 저도 병원 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공중보건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과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 여학부 차장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1학년인데도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반장을 한다거나 앞선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는 기회가 생기면 이끄는 입장에 서볼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기회가 된 만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Fresh Camp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강연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새터민 강사의 강연이 감명 깊었습니다. 강에 악어가 떠 있어도 죽을 기세로 강을 건너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의 상황과 절박함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선배들과의 레크리에이션 시간 때 앞에 나가서 장기자랑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

국외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고서 이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학점도 3.0 이상이어야 하고, 봉사 실적 등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국외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학과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친구들을 두루두루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

신입생 Fresh Camp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알찬 대학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Fresh Camp'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차수별 2박 3일간 수시 입학생 2,660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Fresh Camp는 1일차 '계명 바로알기', 2일차 '계명인과 나의 미래', 3일차 '미래 설정 및 자아실현'을 주제로 학교 소개, 대학생활 성공 전략, 레크리에이션, 선배와의 시간, 진로선택 및 취업 준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

애국심으로 완전무장한 것으로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남자친구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여학생이 있다. 2011년 4월부터 진행된 시험과 면접 그리고 극한 훈련까지 힘겨운 과정들을 모두 뚫고 드디어 2012년 2월 입단식을 거쳐 당당히 ROTC가 된 그녀. 계명대학교의 1호 여성 ROTC 나현선 씨다.

계명대학교 첫 여성 학생군사교육단(ROTC) 탄생
나현선 경찰행정학과 3학년



학군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직업군인이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환칠한 키에 제복 입은 모습이 당당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고,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학교 학군단 창설 이래 첫 여성 ROTC가 되어 뿌듯하고 설렙니다. 입단식을 마치고 여군의 꿈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만나러 대전 현충원을 찾았었습니다. 할아버지 뒤를 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살아계셨다면 저를 기특하게 여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ROTC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9: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남학생은 학교 자체 선발이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었지만 여학생은 학교 자체 내에 학군단이 있는 숙명·성신여대를 제외한 전국구 선발·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1차 필기고사, 2차 신체·체력검정·면접검사, 3차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전국에 수천 명의 여학생이 지원을 해서 단 220여명만 선발되었죠. 그 중 계명대 여학생 ROTC는 저를 포함한 총 5명입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높은 합격자 수에 속합니다.

☆☆☆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ROTC 제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이다.

학군단이 설치된 모든 대학의 1, 2학년 남학생과 2학년 여학생은 ROTC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ROTC가 되면 2년간 소정의 군사교육을 학업과 병행해야 한다.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되며 2년 4개월간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훈련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올해 1월에 2주간 받았던 동계기초군사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영하 30도를 웃도는 강추위 속에서 남학생 후보생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20kg의 완전군장을 하고 산길 30km를 행군하게 되었는데, 군화 속 양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은 어깨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행군했던 동기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저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이 떠올랐고, 같이 고생하는 동기들을 보며 전우애가 생기더군요. 순간, 내가 꼭 완주하고 말겠다는 오기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완주하고 캠프에 도착하니 군악대와 장군님이 우리 ROTC 52기를 맞이해 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ROTC의 대학생살은 어떤가요?

학과수업을 듣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ROTC가 되어서 달라진 점은 학과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군사수업을 주중에 수강해야 하고, 아침 7시에 ROTC 동기들과 조조 체력 단련 시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또 학기별로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하계훈련 4주 과정, 동계훈련 2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ROTC의 대학생살이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더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되는데, 그 전에 병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헌병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 행정학과인 전공을 살려 군대 안의 경찰활동이 주 임무인 헌병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또 심리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만큼 헌병장교로 임관된다면 군대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병사들에게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를 해주고도 싶습니다.

여성 ROTC 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군인의 꿈을 갖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지원하세요. 체력에 자신이 없어 망설여진다면 당장 오늘부터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듯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만 있으면 체력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이 확실하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계명대, 산학협력 중심으로 우뚝 서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단순히 학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것인가가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지난 20년간 묵묵히 그 역할을 해 온 계명대가 최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1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1회 계명산학협력협의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계명의 혜안이 자랑스럽다.



유기적 협력이 최고의 자리로 이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계명대가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떨쳤다. 이는 대구 경북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이룬 쾌거이다.

이번 평가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218개 대학과 17개 연구기관 중 4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1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계명대가 종합점점 80.18을 달성하며 당당히 전체 1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2012년도 사업에 연구지원금 5%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으며, 2012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행사에서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계명대는 1994년 중소기업청과 대구광역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

시엄을 결성한 이래,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 장비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20년 가까이 지역 내에서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한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우수 기관에는 계명대를 비롯해 고려대, 숭실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 선문대, 대전보건대, 한밭대, 아주대, 세종대, 인하공업전문대, 광운대, 경성대, 한국폴리텍 VI대학(대구) 등 총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협력의 출발점에 서다

제1회 계명 산학협력협의회 포럼 개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계명대는 지난 2월 9일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제1회 계명 산학협력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산학협력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신일희 계명대 총장, 이재하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계명대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회 회원,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행사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1부에서는 박영길 대구시 신성장정책관이 ‘산학연관 협력방안 제언’을, 김우승 한국산학협력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의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과 상호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 남재열 계명대 산학연구처장이 산학협력 추진 전략을 간략히 소개한 뒤, 2부에서는 내빈 소개, 신일희 총장의 환영사, 이재하

이사장의 축사, 리셉션 등이 이어졌다. 여러 프로그램 중 특히 지역기업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와 관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남재열 계명대 산학연구처장은 “단순히 관계기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단계를 벗어나 산학협력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열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산학협력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 차원이 아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가족회사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산학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산학협력 허브(Hub)를 구축하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제갈현열 동문 광고홍보학과 03학번

하고 싶은 일만을 하고 살기에는 세상이 녹록치 않기에, 흔히 '안정'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꿈'을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여기며 살아간다. 여기 조금 다르게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 '꿈'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7년부터 각종 공모전에서 30차례 이상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리매김한 제갈현열 동문.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행복감', '만족감'이 늘 함께하는 그만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1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소감은?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세상에는 본받을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을 비롯해 몸이 불편한 수상자들을 봤습니다. 같은 상을 받더라도 장애를 딛고 거기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력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상의 원동력은?

사람들은 보통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저는 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특별한 노력이나 마음가짐이 없이도 일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가는 일에는 누구나 몰입과 집중을 잘하니까요.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PC방에서 밤을 새는 것처럼 제게는 광고와 글쓰기가 게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모전을 준비할 때 오로지 공모전만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고, 수업을 들을 때도 그 생각만 하고, 그런 몰입이나 집중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이 광고인가?

물론 광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광고 자체가 아니라 광고가 가진 요소, 즉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선택했던 것이고, 지금은 글쓰기, 강연 등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학교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은?

공모전 동아리를 만든 것과 뜨겁게 사랑해본 것,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스쿨과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일입니다. 공모전 동아리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글로벌 커리어 스쿨에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사람이란 존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랑은 뭐 말안 해도(^).

특히 해외 봉사활동과 글로벌 커리어 스쿨을 가지 않고 계명대를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그 프로그램의 가치가 훼손될까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사회인으로서 계획은?

제 좌우명이 '무능력은 죄다'입니다. 재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니까요. 사회인 제갈현열이든, 대학생 제갈현열이든 저는 늘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더 많은 광고 이야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갈현열이란 가치를 브랜딩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꿈'을 디자인하면?

대한민국의 광고인, 대한민국의 강사, 아프리카 여행작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CW(Communication Writer)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광고인으로 치열하게, 작가 겸 강연자로 열정적으로 지내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여행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라는 콘텐츠를 써내려갈 수 있는 소통의 작가, 커뮤니케이션 라이터로 살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여섯 가지

1. 주위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니 계산하며 경쟁하지 말 것
 2. 친한 사람의 20% 정도라도 친한 선배, 교직원, 교수님을 만들 것
 3. 미친 듯이 놀아볼 것. 놀 줄 모르는 자는 취업은 해도 성공은 못한다.
 4.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부터 꼼꼼히 살필 것
 5.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말 것. 그 순간 발전은 물거품이 된다.
 6. 해야 할 일 말고,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
- 지방대생이라서 안 된다며 스스로 좌절하거나 학교 탓을 하기보다,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역량을 쌓아서 원하는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김도윤(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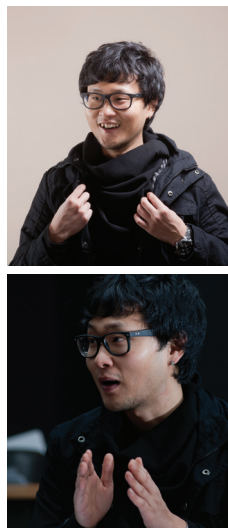
동문에 이어 제갈현열 동문인

2011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여

계명대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들

배출하게 되었다.



☆☆☆

제갈현열 동문

2012. 1. 1~ HSAD(LG그룹 계열사) Brand Solutions Team 근무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대한민국 인재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에서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 총 100명을 선정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2010년 KOBACO YLC(Young Lions Challenge) 대상.

2010년 백지연의 끝장토론 대학생 토론 배틀 개인전 우승.

2011년 잡코리아 글로벌 프론티어 최우수상 외 전국 공모전 36여 차례 수상

공모전 동아리 '마나마나 (MANAMANA)' 창설

재능 기부 강연 활동

해외탐방 및 봉사활동(캄보디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든 아프리카)

선거참여 확산 커뮤니케이션 활동

‘프레타포르테’에 우뚝 선 패션대학 산업연수

세계적인 패션 박람회가 이어지는 파리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총집합하는 그곳에 당당히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패션 알리기에 앞장선 패션마케팅학과 이가영 학생과 그 친구들. 유럽의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동계 산업연수도 같이 다녀온 욕심 많은 그녀와 함께 유럽으로 패션여행을 떠나보자.

이가영 패션마케팅학과 4학년



파리, 그 꿈의 도시로 출발

드디어 ‘프레타포르테’에 간다. 내 인생에 ‘패션’이라는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동경해왔던 파리,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이번 박람회를 위해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산학협력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전세계인 앞에 당당히 내놓게 된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자 사진이나 영상물을 통해서만 접했던 그들의 생생한 패션을 만난다는 기쁨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했다.

생생한 패션 체험현장, 프레타포르테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12 프레타포르테’는 전세계의 패션 관련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규모가 컸다. ‘이런 곳에 우리가 참가하다니’, 벅찬 감흥이 밀려왔다. 전시 부스를 설치한 뒤 우리는 부스를 찾는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을 하고,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리플릿을 나눠주었다. 학생인 우리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중동쪽 바이어들이 한국 전통 자수를 테마로 한 우리 옷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8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람회장은 산 교육현장이었다. 이론으로 배웠던 많은 것들을 박람회장 곳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교수님께서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없는 의상 아이템을 찾아라’, ‘바이어가 되어 다른 부스에 가서 상담하고 결과물을 가져와라’ 등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부스에 직접 찾아가서 구매 상담도 하고 여러 부스들을 자세히 둘러보는 등 다양한 실전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언어의 한계도 깨닫게 되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샹젤리제 거리

프레타포르테가 끝난 뒤에는 파리의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역시 샹젤리제(Champs Elysees) 거리였다.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도 너무나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명품 브랜드들, 통일감이 있는 고대 건축물의 고풍스러운 이미지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매장들과 달리, 각 브랜드의 분위기에 맞게 음악이나 향기 등을 이용하여 한 번 찾은 손님이 오감을 통해 매장을 기억하도록 꾸미고 있는 점이였다. 특히 뜨내기 관광객에게도 VIP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깍듯함과 친절함을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참 보기 좋았다.

오랜 전통이 더없이 아름다웠던 런던

동계 산업연수로 찾게 된 영국. 프랑스 패션산업이 '첨단과 트렌드' 라면 영국은 '역사와 전통의 보존' 이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노팅힐 포토벨로 마켓(Portobello Market)' 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통이 잘 묻어나는 골동품이나 기념품들도 그랬고, 우리의 관심을 끈 구제의류들도 그랬다. 신제품을 중시하는 우리와 달리 영국에서는 구제의류가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판매방식에서도 신제품들과 차별 없이 팔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 역사를 중요시 하는 그들의 의식이 잘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다.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는 해러즈(Harrods) 백화점이었다. 그곳에서 백화점을 상징하는 기념품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러즈 홍차' 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매우 인기가 좋았다. 백화점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들의 장기적 안목이 참 부러웠다.

넓은 세계를 향해 go! go! go!

12박 13일의 일정을 마친 후에 마치 우물을 벗어난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패션 박람회에 참가하고 파리와 런던의 멀티숍을 둘러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패션산업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됐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뿐 아니라 '패션산업' 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전통을 중시하고 항상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는 태도, 각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매장과 시선을 구분 짓지 않는 열린 자세 등이 오늘날의 패션 중심 파리와 런던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하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시야를 넓힌다면 우리 패션산업도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 나의 작은 경험들이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



☆☆☆

패션대학 산업연수

패션대학의 동계 산업연수는 패션마케팅학과 산학협력 프로젝트인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 참가행사'와 패션대학의 '프랑스 파리 패션산업 관련 무역전시회 및 패션시장 조사' 로 나누어 진행됐다. 우선 패션마케팅학과와 산업연수는 (주)청운통상의 '실크로드' 의 세컨 브랜드의 런칭을 위한 프로젝트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패션마케팅학과 학생들이 2011년 10월부터 각종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프랑스 대표적인 패션 박람회인 '프레타포르테' 에서 3박 4일간 직접 부스를 관리·운영했다. 패션대학 동계 산업연수는 '프랑스 파리 패션산업 관련 무역 전시회 및 패션시장 조사' 를 위한 프로젝트로, 패션대학 3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1인당 약 150만 원의 연수 경비를 지원했다.

32
33



나와 계명대학교,

그리고

계명대 청년들에게



내가 살던 동네는 계명대 대명캠퍼스 담장 아래에 있었다. 길게 늘어선 담장을 따라 오래된 집들이 웅기중기 모인 그곳에서 결혼 전까지 30년을 살았다. 성서캠퍼스가 생기기 이전이라 당시 대명 캠퍼스 일대는 대학촌이나 다름없었다. 원룸도 없던 시절이라 자취를 하는 젊은 학생들로 작은 동네는 활기에 넘쳤다. 우리 집도 대학생들에게 세를 놓곤 했는데, 초등학생 시절 나에게 계명대는 친구들과 뛰노는 놀이터였다. 크리스마スイ브가 되면 꼭대기에 밝은 별 조명을 달고 높다랗게 서 있던 대명캠퍼스 정문 안의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아직도 꿈결처럼 떠오른다.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내가 다시 계명대와 만난 것은 2009년 문화부 공연 담당 때였다. 계명아트센터가 완공된 지 1년 만이었다. 계명아트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외관에 압도됐다. 마치 18세기 유럽의 화려한 궁중 무도회장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공연은 시작된다’는 누군가의 말은 계명아트센터와 딱 맞아떨어진다. 지금도 계명대 하면 계명아트센터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때의 충격 때문이다.

공연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LG아트센터, 샤롯데 씨어터, 충무아트홀 같은 서울의 큰 극장에서 공연을 다녀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오페라의 유령, 드림길즈, 삼총사 등의 대형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솔직히 공연장이 주는 감흥은 적었다. 오히려 ‘에게’ 하는 실망이 들기 일쑤였다. 1천900석이 넘는 계명아트센터와 같은 대구의 대형 공연장 규모에 익숙해진 탓이라.

계명아트센터 복도 한 쪽에는 그동안 이곳을 다녀간 뮤지컬 작품들의 포스터들이 나란히 붙어있다.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캣츠, 지킬 앤 하이드, 노트르담 드 파리,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등. 포스터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동안 계명아트센터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이제는 배급사, 제작사, 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 공연장 하면 한 수 낮춰 보던 콧대 높은 제작사들도 계명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해 본 후로는 먼저 공연 제안을 할 정도로 인지도를 쌓고 있다. 대구를 ‘공연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 역시 계명아트센터에서 선보인 공연들의 흥행 성공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명아트센터가 개관 5년 만에 이런 평가를 얻게 되기까지는 계명대학교의 미래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 어느 분야에서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실현하는 데까지 상당한 용기와 미래 예측,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고집이 필요하다. 이런 미덕들은 이제 막 신입생이 됐거나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졸업생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나는 1992년, 대학에 들어갔다. 딱 20년 전이다. 입학식, 그 봄날 캠퍼스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알싸하다. 요즘 신학기를 맞은 대학 교정을 걸어보면 그때의 감회가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젊은 대학생들의 발걸음은 활기차고 웃음소리는 경쾌하다.

하지만 마냥 캠퍼스의 낭만에 빠져있기에는 현실이 가혹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국내 실업자 수는 104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18만여 명이 증가했다. 수십 군데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게 다반사라는 대학 4학년들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88만원 세대’의 고충이 내 일처럼 와 닿는다.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는 식의 달콤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최소한 대학 새내기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라고 강조하고 싶다. 학과 선택도 좋고 지도 교수도 좋다. 명사(名士)들의 교내 특강도 좋고, 취업 동아리나 공모전 서클 같은 학생 활동도 좋다. 책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꿈은 그냥 실현되지 않는다. 누구나 꿈을 얘기하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불면의 밤과 좌절, 그리고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은 시련과 극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졸업학년이 돼서야 입사 원서를 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린다면 그만큼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계명대 학생들에게,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싶다. ‘꿀리지 마라!’. 시행착오는 젊음의 특전이다. 새 봄, 새 학기 계명대 학생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기대 드린다.



최 병 고 매일신문 기자



음악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뮤직바이러스

악보의 음계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선생님의 손길에 맞춰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더듬더듬 피아노 건반을 눌러본다. 여러 번 반복 끝에 동요 한 곡이 완성되고, 아이와 선생님 모두 뿌듯한 마음에 환하게 웃어 보인다.

계명대학교 음악전공자들은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성악을 가르치면서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뮤직바이러스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그간 갖고 있던 재능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강력한 행복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은 어떤 곳인가요?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연속 대구시 달서구, 남구, 달성군의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뮤직바이러스' 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뮤직바이러스 사업이란?

뮤직바이러스(해피뮤직)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음악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전문음악교육과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시켜주고자 합니다. 또 음악·공연예술대학을 졸업한 음악전공 재(석사 재학 혹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업은 2009년 4월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달서구에서 450명의 아동들이, 2010년부터는 남구에서 약 200명의 아동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어요. 2011년부터는 달성군의 약 100명의 아동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 4회 제공인력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뮤직바이러스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1주일에 한 번씩 1:1 맞춤형 전문음악교육서비스를 받아요. 현재는 피아노와 성악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요. 또 한 달에 두 번은 정서순화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 2회 연주회나 뮤지컬 등의 공연 관람과 학부모들을 위한 양육코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 비용은 1인당 월 19~20만 원이지만 그중 18만 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발표회도 연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발표회를 가집니다. 아이들이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이지요. 한번 무대에 서 본 아이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수업에도 더 열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맡았던 선생님들도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뮤직바이러스 사업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 60여 명이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남산기독교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는 뮤직바이러스 한마당' 행사를 열어 장애우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피아노 연주와 성악, 태권도, 발레 등의 공연을 펼쳐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은?

2009년부터 아이들에게 성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몸소 느껴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학생도 노래에 자신이 생기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무대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우리 사업단이 방송되었는데 작곡가가 꿈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신영 _ 계명대 교육대학원생 / 음악교육)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처음엔 아이들이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옆에서 보니 음악을 통해 바뀌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서 순화를 통해 어두운 면도 많이 밝아지고 자부심도 가지는 것 같아요. (심현지 _ 계명대 피아노과 강사)

2012년 계획은?

2012년에는 재능기부공연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서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과 따뜻한 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가슴이 시릴 만큼 아픈 것... 바로 첫사랑이다.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첫사랑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시작되는 곳, 캠퍼스. 따뜻한 오후 햇살, 연두색으로 온통 물든 잔디, 연인들을 위한 벤치, 중세 유럽의 오래된 성을 떠오르게 하는 학교 건물들. 그렇다. 계명대 캠퍼스는 첫사랑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캠퍼스 중에서도 단연 제~일 잘 나가는 계명대 캠퍼스에서 또 한 번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 KBS 드라마 '사랑비' 촬영현장

계명대에 사랑비가 내려요

70년대와 90년대의 시대를 이으며 색다른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 ‘동갑’의 주요 촬영지였던 계명대 캠퍼스가 다시 한 번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다. 70년대 순수했던 사랑의 정서와 2012년 오늘날의 트렌디한 사랑법을 동시에 담아내는 KBS 드라마 ‘사랑비’가 캠퍼스에서 한창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 드라마 제작팀은 지난해 9월부터 계명대 대명캠퍼스와 성서캠퍼스의 도서관과 테니스장, 기숙사 등지에서 촬영을 해왔다.

1950년대 초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계명대 대명캠퍼스는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멋으로 옛 아날로그 시대를 연출하기 좋다. 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붉은 벽돌과 사시사철 건물 벽면을 휘감고 있는 초록의 담쟁이 넝쿨의 운치, 유럽의 고성 같은 분위기의 건물들이 그러하다. 반대로 성서캠퍼스는 세련된 멋과 고급스러움이 현대적이다. 지난 3월 26일(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사랑비’에는 아날로그적인 대명캠퍼스와 현대적인 성서캠퍼스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다.

특히 ‘사랑비’는 ‘가을동화’, ‘겨울연가’의 윤석호 감독이 연출하고, 한류스타 장근석 씨와 소녀시대 윤아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류열풍은 캠퍼스에까지 퍼져 캠퍼스를 찾는 일본 팬들은 물론, 여행사의 캠퍼스 투어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스타의 출연!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계명대 캠퍼스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열풍 드라마의 촬영 명소지로

이미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명소지로서 각광을 받아온 계명대 캠퍼스가 최근에는 한류열풍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면서 한류열풍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계명대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알려지기도 했다. 한동안 캠퍼스에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본과 중국 방송사에서도 캠퍼스를 방문해 ‘꽃보다 남자’의 유명 촬영장소를 직접 찍어가기도 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드라마 TV 조선 ‘한반도’, MBC ‘빛과 그림자’가 촬영을 한 것에 이어 3월부터는 MBC 드라마 ‘더 킹 투 하츠’, KBS 드라마 ‘각시탈’과 SBS 신작까지 공중파 방송 3사 드라마의 촬영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에게 관심받는 한류드라마, 그 열풍 속에서 계명대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기대가 된다.



☆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촬영현장

☆☆☆ KBS 드라마 ‘사랑비’

총 20부작으로 3월 26일(월)부터 KBS2 매주 월, 화 오후 9시 55분에 방영된다.

70년대, 순수했던 두 남녀 인화(장근석 분)와 윤희(윤아 분)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 인화의 아들 서준(장근석 1인 2역)과 윤희의 딸 김하나(윤아 1인 2역)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 한편 32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인화(장진영 분)와 윤희(이미숙 분)는 가슴 뛰는 애절한 사랑을 하는데...

두 주인공 서인하와 김윤희,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펼쳐갈 서로 다른 사랑이야기. 70년대 사랑과 현대의 사랑, 그 다른 모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현장



WHAT'S NEW

우즈베키스탄과 교류 본격화

계명대,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학 센터 설립한 데 이어
최근 다량의 한국학 관련 서적을 기증하는 등 밀접한 교류 펼쳐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2월 16일(금), 17일(토) 양일간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최 교육개혁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됐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교육전문가 300여 명이 대거 참석, 교육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및 전 세계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명대와의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하며 우즈베키스탄 및 전 세계와의 본격적인 교류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주 우즈베키스탄 전대완 대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명대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예술고등학교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동방학 연구소 학자 및 타슈켄트 경제대학 교수 등 총 15명에게 (사)동산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지난해 10월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도움으로 계명대가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산하 동방학 연구소 한국학 센터를 방문, 아브두하리모프 동방학

연구소장, 전대완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 현지 언론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 관련 전문서적 540여 권을 기증했다.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2011년 하반기 우즈베키스탄에 개원한 한국학 센터에 다량의 한국학 관련 전문서적을 기증하고, 교수, 학자, 학생들에게 연구지원 및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우즈베키스탄 내에 한국학 연구의 조그만 초석을 놓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 되고 최근 일고 있는 한류가 한국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한류로 이어지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동방학 연구소와 연구영역에서 학문과 문화 교류를 위해 상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학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동방학 연구소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고대 아랍어로 표기된 다양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고, 이 중에는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한 자료들도 다수 포함돼 한국 역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 캄차카주 주지사 초청 특별강연 개최



계명대는 지난 4월 5일(목)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일류힌(Vladimir Ivanovich Ilyukhin) 러시아 캄차카주 주지사 초청하여 행사박물관에서 특별강연을 열었다.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한국의 캄차카 개발 프로그램 참여의 긍정적 측면’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초청강연에는 계명대 신일희 총장을 비롯해 러시아 캄차카주의회 의장, 캄차카 시장, 계명대 러시아어문학과 학생, 교직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해 200석 규모의 특강장소를 가득 채웠다.

일류힌 주지사는 강연 서두에서 “한국 사람들은 진실하고 선한 민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국가를 방문해봤지만 한국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번이 첫 방문인데 굉장히 편안하다”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캄차카반도는 한반도 바로 옆에 위치해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래 전부터 친구이며, 이웃나라로서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 분야에서 서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상생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캄차카반도에는 120개 이상의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 늘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개발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곳에 관심을 가진다면 한-러 양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12 계명아트센터 희망나눔시리즈 1 개최

계명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금), 계명아트센터에서 ‘2012 계명아트센터 희망나눔시리즈1 - 다문화가정 초청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퓨전국악단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풍류 21’과 타악양상블 ‘고도’, 보컬 윤

성이 공연을 펼치고, 송현주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았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계명아트센터 희망나눔시리즈는 다문화가정, 결혼가정, 보훈가족,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4회 이상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기획, 전석 무료초대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웹 접근성 2년 연속 최우수 평가

계명대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웹 접근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 화제다. 계명대는 이번 평가에서 27개 조사항목 중 자막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등 총 22개 조사항목에서 만점을 기록, 총점 96.8점, 전체 준수율 97.07%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평가 대상 201개 교육기관의 평균점수인 75.5점보다 21.3점이나 높은 점수다.

특히 계명대는 우수한 웹 표준화 구축으로 어떤 웹 브라우저든 오류 없이 학교 홈페이지 화면이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등 웹 접근성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해 총 21개 평가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제시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취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계명대, 지역대학 창업동아리에 1억 원 지원

계명대가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업을 독려하고 우수 청년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모집해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가에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개 내외의 지역대학 창업동아리를 선정해 총 9천5백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동아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창업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해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창업 장학생(최대 300만 원 지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해외시장 판로 개척사업(개인당 500만 원) 지원 시 가점 부

여, 정부 창업지원 자금 연계, 창업 준비 공간 및 시설 지원,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교육, 워크숍 및 산업현장 견학, 기타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계명극예술연구회, 5년째 이웃사랑 실천

계명대 연극동아리 ‘계명극예술연구회’는 지난 3월 7일(수) 계명대 아담스채플에서 계명극예술연구회 차상웅 대표, 계명대 임경수 교목실장, 기아대책본부 대구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쌀 500kg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쌀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계명극예술연구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공연에서 받은 쌀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1972년 창립 이후 지역에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펼쳐온 계명극예술연구회는 지난 2007년 연극공연 때 축하화환 대신 관객들로부터 쌀을 받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증한 것이 계기가 돼 5년째 이웃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계명대는 지난 3월 8일(목)까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기술창업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지난해부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을 실시해온 계명대는 지역에 1인 창조기업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빛이 될 기술 혁신형 청년기업가를 양성하고자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또, 예비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명을 선발하였다.

신청자격은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또는 사업장)를 둔 개인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학생, 교수, 일반인 포함), 창업 1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CEO 및 등재 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창업아카데미 교육은 3월 17일(토)부터 5월 26일(토)까지 총 80시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기술창업 실무, 사업모델 개발, 체형 및 실전 창업 등으로 구성, 예비기술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WHAT'S NEW

신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계명대 창업지원단(단장 김영문)은 지난 3월 9일(금)까지 계명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였다. 2012년 들어 처음 실시한 이번 신규모집은 기술창업에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기술,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을 우대하였다.

입주기업은 경영, 기술, 세무, 법률 컨설팅, CEO교육은 물론 기술개발, 기업홍보, 판로지원, 정부기관 자금조달 연계,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업운영 관련 전문가 수시 상담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받는다.

강문식 입학처장,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계명대 강문식 입학처장(경영정보학과 교수)은 지난 3월 21일(수)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도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강문식 처장은 4월 1일(일)부터 1년간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2012 전국하우스매니저 세미나' 개최

계명아트센터(관장 김완준)가 지난 4월 2일(월) 계명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2012 전국 하우스매니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하우스매니저 세미나'는 계명아트센터가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전국 유일의 공연장 운영 전문 세미나로 매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우스 매니저들이 모두 참여해 일찌감치 이 분야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하우스매니저협회 최찬호 회장(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국립극장 김명수, 백암아트홀 김경래, 예술의전당 이정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유문숙 등 대한민국 대표 공연장 하우스매니저와 관련 종사자 50여 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및 ABT대학 선정

계명대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대구지역 거점 운영기관에 재선정된 데 이어 ABT대학(Active Brain Tower, 사회통합 중심대학)으로 다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계명대는 지난 2008년 ABT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2010년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선정, 2011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선정 등 다른 대학·기관과 차별화된 선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민다문화분야 우수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및 ABT대학으로 재선정되며, 이 분야 선도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에서 올해 ABT대학을 학문적 성장 기반이 있는 대학으로 재편하고 사회통합 정책추진 중심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ABT대학을 재지정했는데, 또 다시 계명대가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 이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조선왕실의 탄생교육과 문예-제왕의 길' 특별전 개최



계명대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공동으로 3월 16일(금)부터 5월 21일(일)까지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동국실(특별전시실)에서 '조선 왕실의 탄생교육과 문예-제왕의 길'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 교육과 문예 관련 주요 유물 1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은 지역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조선 왕실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제1부 '조선 왕실의 출생과 교육'에서는 왕손들의 태향아리와 태지석, 각종 세자 교육자료와 문방구류 등을 전시, 조선 왕실에서 자손의 번성과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고, 제2부 '조선 왕실의 문예'에서는 임금의 글과 글씨인 어제와 어필, 왕실 문예활동의 산물인 왕실 소장 인장 등을 전시, 조선 왕실의 수준 높은 문예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계명대, 경상북도 5개 시군과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 체결



계명대는 지난 3월 경상북도 내 5개 시군(영덕군, 상주시, 봉화군, 김천시, 구미시)과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 체결을 각각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토생활관(기숙사) 건립 기금 출연과 향토생활관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계명대는 2009년 고령군을 시작으로 총 12개 시군과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을 맺게 됐다.

신입생 대상 CIE 교육 실시

계명대는 신입생의 창업유전자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창업 마인드 제고와 학생들에 대한 창업지도 능력 배양을 위해 「CIE(Creativity,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계명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CIE 교육이 창업 마인드 제고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신입생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신입생 대상 교육은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며, 교직원 대상 교육은 국내외 창업 교육 우수 사례와 벤치마킹 성공 사례 등을 제시,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창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창업 지도 능력을 배양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입생 대상 교육에서는 2012년도에 진행할 15개 창업동아리에 대한 자금지원, 10개의 창업 강좌, 지역 창업경진대회, 연간 98명에게 지급하는 창업장학금, 3학점에서 15학점까지를 인정하는 청년기술창업인턴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1인 기업 창업 보육실 등 계명대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소개해 신입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전 단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2월 24일(금)과 27일(월) 오리엔테이션과 병행해 실시되었으며, 교직원 대상 교육은 오는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계명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지역 유망기업의 2만 달러 계약 체결 성사



계명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SEP/Global trade Specialist education Program, 단장 정근준) 5기 학생들은 지난 3월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The 22nd East China Fair(상해무역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진행, 2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San Francisco International Gift Fair 2012'에 참가해 전통 자개제품, 패션 선글라스, USB 등 지역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 현재 여러 건의 계약이 교섭 중에 있으며, 3월 중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International Optics, Optometry and Ophthalmology Exhibition(MIDO 2012)'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구지역 안경업체인 건영클리너, KOREA TMT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안경, 광학 분야 세계 최고, 최대 박람회인 'MIDO 2012'에 참가해 건영클리너의 수출 마케팅을 진행한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고대현(3년) 학생은 현장에서 약 50만 달러가 계약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 실제 계약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사

후관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사업에 선정된 계명대 GSEP은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매년 약 2억여 원을 지원받아 e-trade를 선도하는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대구·경북 지역기업의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해 다양한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계명대,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석권



관세청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계명대 학생들이 시나리오 부문과 UCC동영상 부문에서 FTA 특별상(1위)을 차지하며 각각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국내 대학(원)생들의 FTA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FTA 활용 성공사례 또는 성공 가능한 가상사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주제로 열려 시나리오, UCC동영상, 가상사례 등 3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시나리오 부문에서 FTA 특별상(1위)을 차지한 계명대 전자무역학과팀(장광열, 정해창, 정의서)은 한-칠레 FTA협정을 통해 (주)코원이 칠레를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받아 성공적으로 MP3를 수출한 사례를 선택, FTA 할당관세를 받는 중소기업인과 FTA 할당관세를 모르는 중소기업인을 친구로 설정해 무역에서 나타나는 두 기업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며 FTA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 국제통상학과팀(류주성, 박찬용, 박정형)은 UCC동영상 부문에서 TV 방송프로그램 '개그콘서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패러디한 UCC동영상을 출품, FTA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으며 FTA 특별상(1위)을 차지했다.

WHAT'S NEW

성서 새병원, 시공사 선정 (주)대우건설이 신축공사, 2015년 개원 예정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세계 속 초일류 의료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병원 건립사업에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동산의료원은 3월 27일 새병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주)대우건설과 대구지역 건설사인 신흥건설, 경북지역 건설사인 세원건설의 컨소시엄으로 최종 낙찰되었다. 특히 지역건설사가 30%의 공동도급을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로써 동산의료원은 지역의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새병원 공사착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동산의료원은 새병원 건립을 위해 2008년 8월 새의료원 건립추진본부를 발족하여 국내 유수한 병원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새병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진행했다. 한편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단인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관리를 하였다.

지난해 9월 26일 최종 설계 도서를 납품받은 동산의료원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벵가지메디컬센터 등 병원 건축에 실적이 있는 (주)대우건설을 최종 새병원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새병원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료시설부지(대지면적 40,228.4 m²)에 지하 5층, 지상 20층(연면적 178,459.81 m²)의 1,033 병상과 1,353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함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및 국내 병원 최초로 미국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과 개실형 집중치료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을 갖춘 수준 높은 특정질환 전문진료센터 등을 구축한다. 새병원은 2010년 3월 개강한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의과학연구동과 약학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국가지정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 무균실 등 첨단장비 갖춘 국내 최고시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대구·경북지역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하는 국가 지정 전문센터를 개소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3월 27일 차순도 동산의료원장, 한기환 동산병원장, 이상락 센터장, 김천수 소아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지역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선정되어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향후 10년간 환자 치료 실적, 전문의 교육, 미숙아 생존율 등을 평가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기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장한 387.73 m²(117 평) 면적에 부대시설까지 약 150 평으로 2개의 무균실을 포함한 20개의 보육기를 갖추었다. 또 고위험 신생아의 머리의 온도를 떨어뜨려 뇌를 보호하는 두부저온치료기, 인공호흡기, 보육기, 환아 집중감시기, 두부 및 심장 초음파기 등 최신의 룡장비를 지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의료환경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이상락 센터장을 비롯해 신생아 전문교수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4명, 신생아 전담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들이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를 책임진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열 번째 성공 국내 장기기증 부족 개선에 큰 도움 될 것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혈액형이 다른 신장이식을 열 번째 성공함으로써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동산병원은 3월 16일 B형 혈액형의 어머니로부터 혈액형이 A 형인 정모 환자(여, 30)에게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역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시작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열 번째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성공시킴으로써 혈액형 불일치는 더 이상 장기이식의 금기사항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혈액형이 맞지 않은 사람끼리 신장이식을 할 경우 혈액 내에 있는 혈액형 항체가 이식 장기를 공격,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 이식이 실패하게 된다. 동산병원 신장이식팀은 이식 전에 이중필터 혈장교환술과 동시에 최근에 개발된 리툭시맷(Rituximab)을 주사하여 혈액형 항체를 제거한 후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성공시켰다.

10례 중 거부반응은 한 번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이식신 생존율 및 환자 생존율 모두 100%이다. 수술 후 경미한 출혈을 보인 1례를 제외하면 특별한 합병증도 없었다.

동산병원 김현철 교수(신장내과)는 “신장이식 수술은 만성신부전 환자의 최선의 치료이지만 늘어나는 환자에 비해 이식 장기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며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활성화는 이러한 국내 이식 장기 부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982년 첫 신장이식 후, 현재까지 지역 최고수준인 950례를 시행했다.

“암환자 위한 무료 쉼터” 국내 최초 개소 어느 독지가 동산로템쉼터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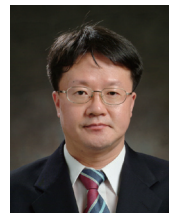
동산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암환자와 호스피스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동산로템쉼터’를 세웠다.

동산의료원 인근 건물 3, 4층에 위치한 동산로템쉼터에는 침실, 거실, 주방을 갖추고 암환자와 가족들이 진료를 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편히 몸을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쉼터(3층)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공간(코칭센터, 4층)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3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 근무하며 쉼터를 찾은 환자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코칭센터에는 건강마스터코치가 상주하면서 암 환자 상담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게 되며, 위암·간암·부인암 등 질환별 환우 자조모임과 암환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쉼터는 어느 독지가의 순수한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한 로템 쉼터 건물(3층 50평, 4층 50평)과 인테리어, 시설장비 일체를 우리 의료원에 기증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했다.

권중혁·백원기 교수 상금 각 4백만 원 패척

권중혁 교수(영상의학과)와 백원기 교수(미생물학교실)가 2월 25일 아담스채플에서 열린 계명대학교 전체교수회에서 우수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각 4백만 원을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임태진 교수, 대한내시경복강경외 과학회장 피선

간담췌장외과 임태진 교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되었다.



김종인 교수, 대한주산기학회 영남 지회장 피선

산부인과 김종인 교수가 3월 31일 열린 대한주산기학회 영남지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회장에 선출되었다.



전동석 교수, 대한진단혈액학회장 피선

진단검사의학과 전동석 교수가 2월 15일 열린 대한진단혈액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피선되었다.



박건욱 교수, 암예방의 날 보건복지 부장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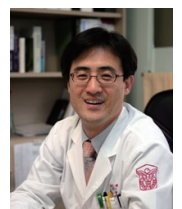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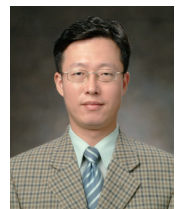
혈액종양내과 박건욱 교수가 3월 21일 열린 제5회 암예방의 날 행사에서 국가 암관리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경식 교수, 동원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김상현 교수, 대구의사회 공로패 수상

3월 22일 열린 대구광역시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가 ‘크론병 생쥐모델에서 anti-TNF alpha 항체 투약 후 대장운동성 변화’를 제목으로 동원연구비 연구과제에 선정되었으며, 류마티스내과 김상현 교수는 공로패를 수상했다.



계명사랑 1·1·1운동

1.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 – 월 1계좌 이상 약정 (1계좌 단위 : 1만 원)

1. 계명대학교 후원의 집 모집 – 구성원 한 사람이 1년에 1개 이상 후원의 집 유치

1. 품격 높은 “기삿거리” 발굴 – 한 부서 한 학기 한 개 이상 품격 높은 “기삿거리” 발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 안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이란 ?

계명인을 포함한 계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조성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은 “1만원의 행복나누기”라는 모토 아래 운영 관리되는 제도로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약정 대상

동문, 학부모, 지역민, 계명대 교직원 등 계명대학교 후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약정 가능

약정 방법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약정서 작성 후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으로 우편, FAX, 방문 제출 후 약정

납부 방법

CMS 자동이체 : 기부자의 계좌에서 매월 기부금을 계명대학교 발전 기금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

- 기부하신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 혜택 가능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53-580-6323, E-mail : 70270@gw.kmu.ac.kr)

계명대학교 후원의 집 안내

계명후원의 집은

계명대학교 발전에 함께하실 「계명후원의 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명후원의 집」이 되시면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기부하신 후원금은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입절차, 대상업체, 납부방법, 계명후원의 집 혜택

가입절차 : 작성하신 약정서는 직접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053-580-6324)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 : 계명대를 후원할 모든 업체 (상점, 사무소, 기관 등), 단, 비교육적인 업체는 제한됨.

납부방법 : 약정금액은 매월 CMS를 통한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계명후원의 집에 드리는 혜택

- 교직원, 학생, 동문가족을 대상으로 후원의 집 가입업체를 본교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학교소식지, 학교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교내 각종 문화 행사시 초청
- 동산의료원 종합검진비 할인혜택
- 학교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 평생교육원 등 단기교육과정 입학우대
- 연간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한 세금감면 혜택
- 학교 민원업무시 주차 편의제공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53-580-6323, E-mail : 70270@gw.kmu.ac.kr)

품격높은 “기삿거리” 발굴

사업명

품격 높은 “기삿거리” 발굴

개 요

한 부서 한 학기 한 개 이상 품격높은 “기삿거리” 개발

목 적

- 대학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 되는 홍보 아이디어 개발에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유도
- 미디어가 주목할 만한 대중 지향적인 소재 발굴, 미디어 노출 극대화
예) 특이한 학생 창업 소식, 미담 관련 소식, 학생회 특별 기획 행사(축제 대신 대민 봉사 등)

추진방법

- 1개 부서에서 1학기에 1개 이상의 홍보용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홍보팀에 관련정보 제공
- 홍보 아이디어 개발부서나 개인은 홍보 대상 관련 기초 정보 수집, 홍보팀 전달 후 추가 정보 수집에 협조
- 홍보팀은 언론관계를 활용하여 매체별 포맷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안 아이디어 전달
- 미디어 전달 내용을 대내외 홍보용으로 추가 활용 (전자메일,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홍보팀

(Tel. 053-580-6032, E-mail : lyonlee@gw.kmu.ac.kr)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1. 10. 16 ~ 2012. 4. 10

교수, 직원

강기환	50,000
강동주	50,000
강문식	50,000
강세영	400,000
강숙성	150,000
강승규	500,000
강영욱	40,000
계정민	250,000
고병철	100,000
공성훈	250,000
곽성우	250,000
구교태	100,000
구보순	50,000
구선희	150,000
권대중	500,000
권민균	2,000,000
권상우	10,000
권성규	500,000
권업	50,000
권영숙	250,000
권오균	500,000
권의섭	50,000
권재환	50,000
권지훈	250,000
기도형	500,000
기태희	150,000
김경미	200,000
김경찬	450,000
김경희	50,000
김관욱	250,000
김광협	100,000
김군찬	40,000
김권구	500,000
김규태	250,000
김기진	250,000
김기혁	500,000
김난희	500,000
김남균	20,000
김남석	1,000,000
김남영	50,000
김남형	1,000,000
김대경	40,000
김문영	150,000
김민정	500,000
김법준	250,000
김병선	100,000
김복규	500,000
김봉섭	150,000
김상홍	15,200,000
김선정	500,000
김성만	100,000
김성숙	500,000
김성태	2,040,000
김성훈(교육학과)	250,000
김성훈(기계자동차공학과)	500,000
김수봉	500,000
김숙형	50,000
김순자	50,000
김순진	200,000
김승민	1,000,000
김승직	200,000
김신혜	250,000
김영대	100,000
김영문	300,000
김영배	200,000
김영진	1,000,000
김영철	250,000
김영희	30,000
김옥준	250,000
김완준	900,000
김완호	50,000
김용일	500,000
김원수	2,000,000
김원진	500,000

김윤곤	50,000
김윤조	1,250,000
김은경	150,000
김인수	250,000
김인순	100,000
김창환	250,000
김재두	250,000
김재익	250,000
김재현	50,000
김재훈	300,000
김정구	500,000
김정규	250,000
김정배	500,000
김정자	50,000
김종덕	300,000
김종세	250,000
김종영	500,000
김종환(영어영문학과)	250,000
김종환(총무팀)	200,000
김주봉	50,000
김중순(경영공학과)	500,000
김중순(한국문화정보학과)	500,000
김중효	150,000
김지영	300,000
김지은	100,000
김지현	250,000
김진균	50,000
김진상	100,000
김철수	750,000
김춘이	50,000
김춘해	250,000
김충진	200,000
김태권	500,000
김태배	50,000
김택수	250,000
김판희	250,000
김학윤	500,000
김한림	300,000
김한수	300,000
김해동	500,000
김현옥	250,000
김혜경	500,000
김효정	50,000
김희중	500,000
나성영	500,000
남재열	150,000
남택수	150,000
노광수	1,000,000
도영철	50,000
류두하	300,000
류무하	1,000,000
류숙희	150,000
류재성	250,000
류정우	300,000
류종호	150,000
문성화	50,000
민경모	500,000
박강호	50,000
박경옥	50,000
박경희	60,000
박경희(학술정보운영팀)	300,000
박광성	1,400,000
박광희	500,000
박기준	50,000
박기현	100,000
박남환	300,000
박대홍	50,000
박동완	40,000
박영호	900,000
박미경	500,000
박민수	100,000
박민정	120,000
박병춘	500,000
박상범	250,000
박상원	500,000
박상훈	50,000

박성우	50,000
박세정	1,500,000
박소영	50,000
박애자	50,000
박영태	450,000
박영호	250,000
박용진	500,000
박우선	50,000
박윤숙	100,000
박윤주	250,000
박재환	250,000
박재희	500,000
박정숙	500,000
박종선	500,000
박주홍	50,000
박준식	5,400,000
박찬수	50,000
박창모	100,000
박춘화	450,000
박혜선	250,000
박홍의	50,000
박희구	500,000
방대욱	100,000
배대일	300,000
배상근	500,000
배영상	250,000
배재영	450,000
배창범	150,000
백기만	50,000
백승욱	500,000
변성준	50,000
변양원	800,000
변홍식	1,000,000
사공창호	50,000
서경석	250,000
서근섭	1,500,000
서봉호	300,000
서정남	100,000
서정수	500,000
성소영	2,000,000
성이환	100,000
손근호	50,000
손기봉	50,000
손유익	100,000
손인호	100,000
손재영	250,000
손정수	2,000,000
손주욱	500,000
손철수	200,000
송근유	50,000
송영정	250,000
송유진	600,000
송형식	250,000
신규철	350,000
신근식	450,000
신승현	500,000
신인숙	2,000,000
신지숙	500,000
신현명	500,000
신형준	300,000
신호철	100,000
심호택	1,000,000
안봉근	50,000
안세권	500,000
안재범	100,000
안정훈	180,000
양봉식	300,000
양재희	150,000
양정혜	100,000
엄우용	250,000
여박동	50,000
여은아	150,000
오세욱	50,000
오우성	1,500,000
오창우	80,000
우재영	150,000

유가호	500,000
유병환	150,000
유연옥	2,250,000
유옥희	500,000
유원기	500,000
유형관	50,000
유호욱	200,000
윤광렬	250,000
윤영진	500,000
윤우석	500,000
윤원희	250,000
윤태숙	50,000
이권호	600,000
이규석	50,000
이규형	250,000
이대주	500,000
이동수	500,000
이로리	250,000
이명환	250,000
이문규	500,000
이백	500,000
이병로	50,000
이병수	500,000
이병환	500,000
이부윤	500,000
이상빈	250,000
이상식	100,000
이상철	50,000
이상철	50,000
이석순	550,000
이선봉	500,000
이선창	250,000
이성복	2,000,000
이성용	500,000
이성우	50,000
이성환	50,000
이소정	50,000
이순철	50,000
이승근	250,000
이승환	500,000
이승훈	150,000
이승희	300,000
이시경	500,000
이시훈	100,000
이신우	150,000
이양섭	500,000
이영	500,000
이영기	250,000
이영숙	300,000
이영찬	500,000
이원재	250,000
이원호	200,000
이윤석	50,000
이은영	50,000
이은희	1,050,000
이인경	40,000
이인선	8,000,000
이재구	150,000
이재길	200,000
이재천	500,000
이종광	1,000,000
이종국	250,000
이종문	1,000,000
이종한	500,000
이주형	200,000
이준화	150,000
이중희	50,000
이진호	450,000
이진희	2,000,000
이창섭	450,000
이철근	500,000
이충권	100,000
이태관	500,000
이필환	2,750,000
이항순	300,000
이현미	50,000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1. 10. 16 ~ 2012. 4. 10

이희선	300,000	허정명	300,000	김광배	40,000	박봉선	400,000
임경수	1,550,000	허정운	150,000	김기덕	50,000	박상은	320,000
임태근	40,000	호광수	500,000	김기만	60,000	박성민	20,000
임문혁	500,000	홍계린	50,000	김길원	60,000	박수근	60,000
임병화	50,000	홍동권	100,000	김길자	100,000	박순표	60,000
임운택	500,000	홍미정	150,000	김난숙	100,000	박승철	120,000
임인섭	60,000	홍보윤	50,000	김대진	60,000	박양옥	500,000
임진수	1,000,000	홍성하	50,000	김두복	60,000	박영가	60,000
장기선	50,000	홍성희	500,000	김명조	60,000	박은숙	500,000
장덕성	100,000	홍숙	50,000	김무진	60,000	박정태	60,000
장옥관	2,000,000	홍순성	10,040,000	김문희	60,000	박준환	120,000
장원재	60,000	홍순희	150,000	김보현	100,000	박진택	60,000
장인진	1,050,000	홍승표	500,000	김상기	50,000	박창원	40,000
장준호	500,000	홍영석	30,000,000	김상남	300,000	박해성	50,000
정기성	150,000	홍원식	500,000	김상환	100,000	박현건	1,000,000
정막래	6,000,000	홍희숙	100,000	김상호	60,000	박현목	60,000
정문영	250,000	황병훈	250,000	김석현	50,000	박현해	250,000
정승학	500,000	황일권	500,000	김선미	100,000	방경환	120,000
정연인	500,000	황재광	400,000	김성복	100,000	방국태	50,000
정영석	50,000	황재범	1,500,000	김성준	100,000	배성운	40,000
정용주	250,000	Dickey, Robert John	600,000	김성택	60,000	배성창	60,000
정우영	200,000	Freddie, Lim Wei Siang	150,000	김성호	60,000	배소식	200,000
정우호	500,000	Michael C. E. Finch	500,000	김성환	60,000	배충현	100,000
정인철	50,000	Muller, Retief	900,000	김세련	120,000	배태성	120,000
정중호	3,300,000	Schabert, Jan Georg	250,000	김세훈	60,000	배태숙	109,900
정진갑	450,000	Spahn, Christian	500,000	김승희	500,000	배현아	300,000
정치훈	150,000	Synn, Jienki	500,000	김시진	60,000	백경우	50,000
정현희	250,000	Tarasov, Sergey	3,670,364	김연숙	300,000	백동주	80,000
정해숙	50,000	Wee, Desmond Shao-Min	125,000	김영애	200,000	백영락	10,000
정호기	100,000	Yoon, Chun Suk	100,000	김영오	180,000	변재광	60,000
정호진	500,000	동문, 재학생		김용환	200,000	별하나어린이집	50,000
제해성	300,000			김용호	50,000	비사행정회	1,000,000
조동제	50,000	(주)박종태	5,000,000	김은숙	240,000	사공광	40,000
조상국	50,000	(주)석창호	300,000	김은아	240,000	서기은	60,000
조이섭	650,000	(주)해성오피스탑	600,000	김은주	100,000	서대원	60,000
조인홍	100,000	14기 정신보건간호사과정 일동	500,000	김은화	200,000	서동희	1,000,000
조주현	500,000	간호대학2011학년도졸업생일동	2,000,000	김은희	200,000	서명숙	100,000
조현기	300,000	간호학과 30회 동기회	1,000,000	김인숙	120,000	서미영	100,000
조현길	100,000	간호학과 45회 동기회	500,000	김재우	40,000	서영우	40,000
조혜연	400,000	간호학과 47기 동기회	1,300,000	김정대	60,000	석성희	250,000
주흥택	100,000	간호학과 57회 동기회	3,000,000	김정순	50,000	석승자	100,000
진용주	60,000	간호학과 시카고 동문회	5,000,000	김제남	60,000	성창현	50,000
차유미	550,000	간호학과 재경동창회	10,000,000	김제호	60,000	손경목	10,000
채연정	50,000	간호학과 플로리다주 동창회	1,000,000	김종덕	50,000	손순덕	100,000
채용웅	250,000	간호학과 LA지부 동창회	2,000,000	김종식	60,000	손한철	120,000
천우광	250,000	김미현	300,000	김종하	50,000	송미경	400,000
최경훈	300,000	강석희	10,000,000	김찬주	40,000	송미옥	250,000
최두선	150,000	강성민	60,000	김태건	60,000	송제헌	40,000
최명식	250,000	강신화	60,000	김태진	30,000	신기동	50,000
최민권	200,000	강영숙	500,000	김태형	60,000	신기혁	50,000
최봉기	500,000	강영순	300,000	김팔술	200,000	신명호	60,000
최봉도	500,000	강영훈(평안복지재단)	60,000	김학란	100,000	신철수	50,000
최상호	50,000	강재구	60,000	김형민	20,000	신봉현	120,000
최성곤	250,000	강현건	50,000	김형일	60,000	심상왕	120,000
최성우	500,000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3,000,000	김홍기	60,000	심재복	120,000
최우정	500,000	경영회	3,000,000	김후자	5,000,000	안미경	150,000
최은정	230,000	계명대 총동창회	30,000,000	김희연	1,000,000	안향주	100,000
최인선	100,000	계명원태권도장	30,000	나문박	20,000	안형구	40,000
최종렬	500,000	계명회	5,000,000	나재천	500,000	안호용	10,000
최진순	500,000	고재학	60,000	남애리	60,000	양진우	60,000
최하늘	300,000	곽진국	60,000	남종일	3,000,000	여강택	2,000,000
최해운	500,000	곽태근	30,000	남홍식	50,000	여금원	60,000
최현식	450,000	구경덕	100,000	노영수	40,000	여정희	100,000
최현주	100,000	구자옥	100,000	노성록	60,000	연극예술과 재학생 일동	2,000,000
탁진영	100,000	구정애	40,000	류경열	240,000	오미숙	100,000
하영석	100,000	권기남	300,000	마성수	60,000	오봉익	20,000
하정철	250,000	권대환	60,000	박건애	100,000	우오구	60,000
하지수	500,000	권미란	40,000	박경한	40,000	우재호	60,000
하지연	150,000	권상화	50,000	박규진	600,000	윤경식	100,000
한문식	500,000	권순환	60,000	박기범	60,000	윤만철	60,000
한병진	250,000	권오성	60,000	박기봉	60,000	윤상필	50,000
한복희	500,000	금성희	200,000	박동철	60,000	윤수용	200,000
한여동	250,000	김갑식	60,000	박말자	300,000	윤종선	100,000
한희정	150,000	김건일	60,000	박무식	60,000	이권덕	2,000,000
허경미	500,000	김경자	100,000	박미라	200,000	이금숙	120,000
허도화	1,500,000			박민하	10,000	이금옥	500,000

장학금 약정 세부 안내

약정 대상

동문, 학부모, 지역민, 계명대 교직원 등 계명대학교
후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약정 가능

약정 방법

-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kmu.ac.kr>)를 통한 인터넷 약정
-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약정서 작성 후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으로 우편, FAX, 방문 제출 후 약정

납부 방법

- CMS 지동이체: 기부자의 계좌에서 매월 기부금을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지동이체하는 방법

기부자 예우와 혜택

- 기부하신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 혜택 가능
- 감사서신과 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정기간행물 발송
- 교내 각종 문화행사 시 초청

■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

Tel.(053)580-6322~4, Fax.(053)580-6325

■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fund.kmu.ac.kr>

■ E-mail: 70270@gw.kmu.ac.kr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후원

보내실때

□□□-□□□□□□

만민의
정신
강화
능
나눔
기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7044-7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 릴레이

★ 나눔

★ 사랑

★ 후원

★ 나눔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이란...

계명인을 포함한 계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조성한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용
되는 것입니다.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은 "만원의
행복나누기"라는 모토 아래 운영·관리되는
제도로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품칠하는 곳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기부 약정서

기부자 정보

기 부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속공제 및 세금감면용으로 사용)	
직장 및 부서				
주 소	자택			우편물 수령지 ☐
	직장			☐
전 화	자택	휴대폰		
	직장	E-mail		
추천인	성명:	연락처:		

약정 정보

월 납부액 ★1계좌 월 10,000원	☐ 1계좌	☐ 5계좌	☐ 10계좌	☐ 기타 ()계좌
약정기간	☐ 3년	☐ 5년	☐ 기타 ()년	

납부 방법

☐ CMS 입금 (자동이체)	은행명	결제일		☐ 15일	☐ 30일
	계좌번호				
☐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예금주	(기부자와 다를 경우 작성)			
	월 공제액	금	원정 (₩)		
	공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공제)			

위와 같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인)

기부자: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1. 10. 16 ~ 2012. 4. 10

이기호	50,000	정송자	50,000	(주)대아	600,000	우력1번지	300,000
이대길	10,000	정예찬	60,000	(주)삼정디지털정보	100,000	원대복집	600,000
이명규	60,000	정은주	120,000	(주)유산섬유	100,000,000	원원스포츠토토(나이키)	300,000
이명희	60,000	정인웅	550,000	(주)한국감정원	6,000,000	유기초밥	180,000
이미경	100,000	정재식	300,000	(주)한택엔지니어링	3,000,000	유빈차량상 예절교육원	180,000
이미화	300,000	정재정	60,000	구미시	300,000,000	이니스프리 계명대점	300,000
이민영	60,000	정재호	120,000	국민은행(이곡동지점)	5,000,000	자금성	500,000
이병철	400,000	정정미	30,000	군위군	300,000,000	전라도해물	300,000
이복순	300,000	정정순	500,000	권달호(STAFF백두)	250,000	정강희 두부마을	200,000
이부형	300,000	정정환	60,000	김&김치과	1,100,000	정우초밥(김일국 사장님)	300,000
이상봉	100,000	정지목	40,000	김경주	300,000	좋은날	150,000
이상문	60,000	정찬희	60,000	김연희	10,000,000	참한손칼국수보쌈	300,000
이상신	60,000	정철주	1,100,000	김정근	60,000	참한우소갈비집	600,000
이상인	60,000	정한성	100,000	김천시	300,000,000	투썸플레이스 대구계명대점	300,000
이석수	80,000	정현철	50,000	대지철강(주)	10,000,000	파리바게뜨(성서계대점)	250,000
이석원	50,000	조기태	60,000	대학교회	50,000,000	파리바게뜨(호산점)	150,000
이석윤	30,000	조명희	50,000	박주희(99그래픽)	100,000	편대장영화식당(죽전점)	300,000
이선우	60,000	조미옥	100,000	배재천	300,000	평화육남매왕족발	300,000
이선주	4,000,000	조선숙	1,000,000	백창곤	5,000,000	하나투어(주)여행닷컴	300,000
이성은	400,000	조성옥	180,000	봉화군	100,000,000	하늘정원	600,000
이소정	180,000	조영동	60,000	상주시	100,000,000	호박주어탕	150,000
이승현	60,000	조영미	80,000	신영사(권영섭)	1,500,000		
이수락	120,000	조영훈	60,000	영덕군	100,000,000		
이순도	60,000	조은덕	2,000,000	이종희	240,000		
이순주	60,000	조정기	100,000	이호용	50,000		
이승봉	60,000	조지훈	60,000	하춘수	10,000,000		
이신자	2,000,000	조화숙	200,000				
이연희	60,000	조희식	1,000,000				
이영철	50,000	주병선	60,000				
이운구	100,000	주영자	200,000				
이운우	200,000	중국어문학과 동문회	2,000,000				
이유석	20,000	진우생	1,000,000				
이은주	40,000	진희주	20,000				
이은희	400,000	차승엽	60,000				
이인식	60,000	차영섭	60,000				
이종민(교통공학과)	60,000	채재영	2,000,000				
이종만(기독교학과)	300,000	채해정	100,000				
이종준	60,000	최고경영자과정 59기 동기회	5,000,000				
이주연	20,000	최고경영자과정(AMP) 55기 일동	1,000,000				
이준옥	120,000	최광용	60,000				
이지수	80,000	최상언	100,000				
이진욱	40,000	최상호	20,000				
이찬우	120,000	최성훈	180,000				
이천기	286,800	최승심	1,000,000				
이춘설	300,000	최연호	100,000				
이충열	60,000	최은영	400,000				
이태경	300,000	최은정	60,000				
이태원	300,000	최정민	600,000				
이학규	10,000,000	최중수	50,000				
이현서	400,000	최주현	60,000				
이현석	40,000	최중원	180,000				
이현숙	240,000	최형민	60,000				
이현식	60,000	최형창	60,000				
이형교	100,000	최혜원	60,000				
이호자	219,800	한동섭	60,000				
임성욱	60,000	한영석	50,000				
임영화	1,000,000	한정원	300,000				
임은주	60,000	허계란	500,000				
임한길	100,000	허영혜	100,000				
임현식	20,000	현지영	300,000				
장도미(퀵메디컬)	1,000,000	홍근형	60,000				
장봉학	120,000	홍순남	200,000				
장재봉	120,000	홍승환	120,000				
장지란	100,000	홍영길	20,000				
장춘자	60,000	홍원표	60,000				
장현식	200,000	홍필규	200,000				
장혜련	300,000	황병석	300,000				
전관호	60,000	황순희	200,000				
전미경	240,000	황은주	20,000				
전보현	300,000	황인재	20,000				
전상영	60,000						
전순우	400,000						
전준홍	60,000						
전창익	300,000						
정동열	50,000						
정봉성	60,000						

유관기관

(재)여산장학문화재단	16,000,000
(주)경북코치서비스	10,000,000
(주)대구은행	3,002,000,000

계명후원의 집

(주)성서현대정비센터검사소	200,000
(주)세인트웨스트호텔	1,800,000
(주)온누리여행사	300,000
(주)올림피아항공여행사	600,000
강나루식당	300,000
강선장회도매	300,000
강창식당	100,000
개성보양탕	600,000
경주식육식당	300,000
계명안경	200,000
광나라	100,000
구룡포회도매	200,000
남마다골갈비(계대 대명점)	150,000
녹용각	300,000
다림한정식	100,000
달마루 숯불갈비	150,000
대광부분정비 이성준 사장님	600,000
대구텔레콤(공짜나라)	600,000
도도플라워	300,000
도시안스포츠헤터 (주)도담	150,000
마마국시	300,000
마사커피	200,000
마산전통복집	100,000
먹골한정식	300,000
명덕꽃집	300,000
무지개꽃집	600,000
미광스포렉스	600,000
백두산	150,000
뱅[Vin]	600,000
별고을한우	300,000
보길도 해물낙지	300,000
부천생갈비살	400,000
비원	1,000,000
빨간우산애드립	300,000
서울떡집	300,000
성서계대구내안경원	300,000
성서호림일식	300,000
성희불고기가든	300,000
소담들	300,000
송림골가마솥국밥	300,000
시애틀 명덕집	300,000
신승정패션디자인학원	50,000
아덴힐즈	300,000
아라주꾸미	250,000
아방궁	600,000
안계어탕	250,000
오사카	600,000

기타

(주)닥터바이오	1,000,000
(주)삼익악기	1,000,000
(주)에코원	15,000,000
(주)프리앤메지스	420,000
강민지	120,000
건축공학과 후원회	2,577,000
건축학과 후원회	2,577,000
계명사랑카드 수익금	6,073,551
국제학원연구소 후원회	5,529,569
김경재	60,000
김광훈	2,500,000
김덕	102,000
김상돈	40,000
김수용	500,000
김영준	500,000
달성교회	100,000
도원주	1,200,000
동일교회	1,000,000
박경연(그라지아)	3,000,000
박세운	60,000
박에스터	60,000
박에스라	60,000
박재태	60,000
박효진	40,000
반미자	50,000,000
손광석	60,000
송은옥	200,000
송인철	60,000
식품영양학과교수학생일동	10,000,000
신경석	60,000
아멘교회	1,000,000
오선화	100,000
이상엽	300,000
이상일	60,000
이상훈	500,000
이영준	300,000
이자	9,718
이재경	478,000
이한규	120,000
이화여대 영문과 61년 졸업동문	1,000,000
익명	600,000
정명자	300,000
정병원	100,000
지외식	13,000,000
청아환의원	500,000
최덕기	300,000
홍순홍	40,000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5114 / FAX. 053-580-5454
<http://www.kmu.ac.kr>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704-701 Republic of Korea
TEL. 82-53-580-6022 / FAX. 82-53-580-6025

